

자치칼럼



이 용 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광주마을학교 교장

12·3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새해 마을 자치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차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광주 마을자치 1차 포럼에 이어, 12월4일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이, 그리고 12월19일에는 마을자치 2차 포럼이 진행됐으며, 5개 자치구에서도 각각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갖고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수고를 격려 자극했다.

지난 9월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주최한 1차 마을자치 포럼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활동의 현황을 차분히 직시하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용기를 갖고자 주민자치회와 마을활동가들이 난상토론의 공론장을 갖고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처음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 '2024 광주 주민자치 공동체 한마당'을 시청 시민홀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개막

행사는 취소되고, 의욕적으로 마련한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주민자치·공동체 박람회 마을상회', '이웃 소통 세미나 소통방 1% 찾기' 등의 행사만 수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12월19일에는 2차 마을자치 릴레이 포럼이 '용기와 실천을 통한 광주 마을자치 성숙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열려 마을자치의 방향성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광주형 마을자치 모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5개 자치구에서도 1년 성과를 결산하는 자체 성과보고회를 가졌는데, 특히 12월19일 열린 서구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18개 마을 BI와 연계한 동별 우수사례들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책 마을 동천동의 '내 생애 첫 책 배달', 풍암동 공간실험 프로젝트 '모두모아 길 차 없는 거리', 상무1동의 1인 가구를 위한 '모두의 한끼', 금호1동의 마을상품권과 연계한 '나눔의 선순환 희망드림 상생공간', 화정2동의 세대공간 '꿈지락마을' 등 주민들의 상상력과 마을사람이 어우러진 특별한 사례들이 마을자치의 가능성과 마을정책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금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진 이러한 활동들은 96개 전통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2025년부터 시행할 '광주형 마을자치의 방향'

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국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정과 실험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광주 마을자치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광주형 마을자치는 지금까지의 협치·동원형 거버넌스에서 각 동 마을의 자치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대해 가는 '협력 공동생산·공동창출형 거버넌스(co-productive, co-creative governance)'로 변화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동 중심 마을자치에 더 많은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자. 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주민단체들이 마을자치의 주체가 되어 마을경제, 마을돌봄, 마을ESG, 마을도서관, 마을교육 등 다양한 마을단위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하고 협력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주민자치회도 여러 주민단체를 열린 연대와 협력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융합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을의 촘촘한 마을공동체들도 외연 확대로 까리까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마을문제와 의제 공론장에 적극 참여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광주형 마을자치의 수레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튼튼한 두 바퀴로 굴러간다. 그 수레에 행복한 주민들을 가득 모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활성화로 농촌 초고령화 대비해야

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에게 매도하는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추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은 매월 수령받는 보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농업인은 농업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이라면 농지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선임대·후매도'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활용해볼만하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이 매입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대신 매입하고, 최장 30년간 임차 경작 및 분할상환이 완료되면 청년농이 소유권을 이전해갈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매입해 비축한 우량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

인 등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차료는 80% 감면된다.

다만 아직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은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청년농 간담회, 읍면 순회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지역축제, 미디어 등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본인인증 한 번으로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개시하기도 했다.

어느덧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하는 때다. 농촌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개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우선 과제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방안, 접근성과 고객 편의 증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농업인,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061-330-41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습폭설 유비무환 자세 필요하다

야한다는 얘기가.

추운 날씨에 갑작스레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게 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더욱이 고갯길이 많고 응달진 급커브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적설량이 많더라도 주요구간에 대한 제설작업만 제대로 이뤄지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다.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이미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겨울철 예기치 않은 폭설 등에 대비해 제설 장비·인력·자재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인명

피해와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마련돼 있는 제설대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예상을 벗어난 폭설이 내릴 경우 준비한 인력과 자재 운용면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운전자는 폭설에 대비해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추는 한편 시설하우스 능가 또한 폭설에 대비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 겨울엔 유비무환의 자세가 그 어느해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장성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제주항공 참사 수습 역량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한민국이 상상하기도 힘든 대참사로 큰 충격에 빠졌다. 참담함을 가늠 수 없다. 특히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 방콕 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 폭발 사고로 승선 승객 175명 중 광주·전남지역 거주자가 157명(각 81명, 76명)에 달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아 단체 여행이 많았던 만큼 남은 가족, 친지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발생 수색으로 유해 수습이 마무리됐다. 조속히 신원 확인을 마치고 유가족에게 인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정부 차원의 조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원팀을 파견하며, 제조사인 보잉과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된다고 한다. 항공사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게다가 김포공항에서 하룻새 같은 기종이 동일한 문제에 정상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

명 피해 사례로 남았다. 더욱이 끔찍한 재난의 사망자 대다수가 광주·전남 주민이었다. 무안 공항 대합실은 출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비명과도 같은 통곡, 절규가 울려 퍼지고 눈물바다가 됐다. 시도민들도 안타까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나누는데 한마음이다. 대개가 이용하는 공항이라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일주일 간을 국가에도 기간으로 정했다. 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도청,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등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비상 정국이크인 해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례 절차, 심리 치료까지 완전한 수습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일체의 조사 내용도 투명하게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 한 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순항중인 광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됐다. 영재고 설립 비용도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으로 결정됐다.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사업이 적적 추진되는 모습이다.

AI 기본법 국회 통과로 2029년까지 9천억원을 투입하는 'AX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과 국가 컴퓨팅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관련 기술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252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는 등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대표 기업들은 'CES 2025'에서 최고상을 비롯한 5개 혁신상을 받았다. 핵심 기관인 국가AI데이

터센터는 2천여 건의 기업과제를 수행했고, 76종의 다양한 장비를 통해 288개 기업과 시민 5천 432명의 실증을 지원했다.

AI영재고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속히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돼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2025년 2월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지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북구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바로 옆이며, 연면적 1만5천900㎡, 지하 1층·지상 5층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동 규모로 들어선다.

광주시의 언급대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AI 산업은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재양성 사다리 확보, 풍족한 인프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우수기업 유치까지 차질없이 순항하는 중이다.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 행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더 단단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기대하겠다.

그래픽 뉴스

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 전년비 3만3천명 가량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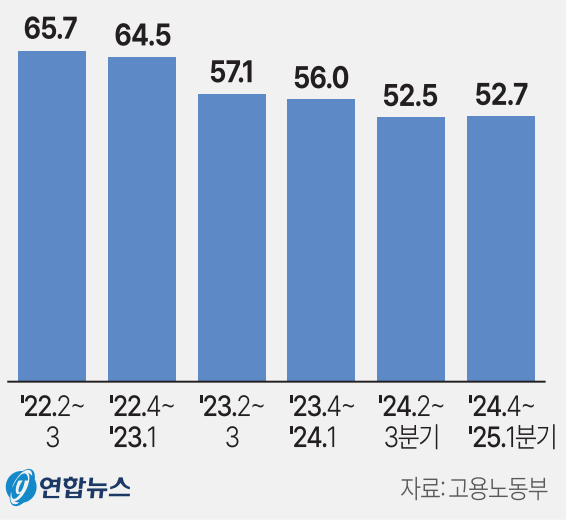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만3천 명가량 줄어 채용시장에 긴 여파가 예상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제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52만7천 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3천 명(5.9%)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같은 시기 채용계획 인원(56만6천 명)이 전년 동기 대비 8만1천 명(12.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둔화했으나 절대적인 인원은 더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만5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만5천 명, 도소매업 6만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5만3천 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

직종별 채용계획 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 7만2천 명, 영업·판매직 5만6천 명, 음식·서비스직 5만 2천 명, 운전·운송직 4만7천 명 등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7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2천명(6.2%) 감소했다. 3분기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인 구인·채용 현황을 보면 구인은 12만8천 명으로 작년보다 3.1% 증가했다. 채용은 11만6천 명으로 5.2% 늘었다. /연합뉴스

기업채용계획인원 추이

종사자1인 이상사업체약 72,000개소 기준, 단위:만명



독자투고



김 덕 형

불규칙한 기상여건에서 갑작스런 눈이라도 내리게 될 경우 당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게된다. 제설작업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눈이라도 온다면 당연할 것이다.

강추위에 대비해 제설대책을 다시한번 서둘러 점검해 봐야할 듯 싶다. 기습 폭설로 인해 출근길 교통과 비닐하우스 붕괴로 인한 농산물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